



오 록 도 행복 칼럼

유재우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110년 전 우암의 격동적인 변화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우암 지역 부근에는 가옥 몇 채만 있었다. 고깃배가 드나들고, 언덕에는 곡식이 넘실거리는 한적한 촌락이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으로 부산의 운명과 함께 우암도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에도 우암은 계속 역사의 현장이 되어 왔다.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왔고 인근에 세찬 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 현재에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일제강점기 우암에 수탈시설이 들어왔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유신 이후 국민체위 향상을 위해 식생활 개선으로 육류와 우유 소비를 장려하였다. 일본에서 소가 부족해지자, 일 잘하고 온순하며 육질 좋은 조선의 소를 일본으로 반출할 계획을 세워 우암을 적지라 생각해 1909년부터 ‘수출우급역소’를 건립하였다. 우암에 청사, 소독실, 해부실, 부두 등

지원시설을 제외하고 한 해에 5만두 이상을 송출할 수 있는 한반도 최대의 수탈시설이 들어섰다.

곧 이어 1950년 6.25전쟁 시기에 우암의 검역소는 적기피란민수용소로 변신하였다. 이곳의 어려운 환경에서 고향을 그리며, 같은 처지의 이웃과 서로 의지하며 억척같이 살아 오셨을 것이다. 피란민은 그대로 우암에 정착해 자녀들을 키우고 결혼시켰다. 이제는 백발노인이 되어 있는 우암 사람은 격동기를 뚫고 살아 온 우리 대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과거 피란민이 현재 우암의 토박이, 주인이 되어 있다.

그 동안 우암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전쟁 통의 주거환경은 말할 나위 없었다. 천막과 움집도 있었고, 화재로 주변 부대로부터 판매를 얻어 판잣집을 복구에 살았다. 옆집이 서로 이어진 모습이 하모니카처

럼 보였다고 한다. 현재 판자벽 밖에 불록을 덧쌓은 형태로 수 십호 이상 남아있다. 휴전 이후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란민들은 소가 있었던 시설에 살게 되었다. 이후에도 주변에 산업시설이 많아졌고, 인구밀도에 따라 증축이나 소 막사 일부 철거와 신축으로 과거 형태가 변형되어 있다.

격동기 속에서도 우암의 기억은 장소와 시설물과 함께 지속 되어왔다. 우암동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방법으로 재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재개발은 마을을 철거시키기 때문에 마을의 기억도 상실된다. 또한 약 10년 동안의 고생과 갈등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큰돈을 더 내야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든 우암동에서 타지로 이사를 가야한다. 재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노인이 되신 우암마을 주민은 현재까지 동고동락해 온 이웃과 행복하게 마무리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고 여기서 여생을 평화롭게 지내시게 해야 한다.

최근 부산시에서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주제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암은 부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어 6.25전쟁 당시부터 존재해 온 세계에서 희귀한 피란 주거지 유산이다. 이 장소를 관리하고 일부 보존하는 것은 격동기 부산의 시공간을 거치며 억척 같이 살아오신 우암 어르신들의 역사가 살아있는 장소이다. 부산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피란수도의 피란민의 생활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 우암마을은 거의 유일하고 가치 있는 피란생활·주거 유산이며 교두보이다. 그러나 주변의 강한 개발환경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었기에, 문화재청에서 올 8월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의 과거가 미래까지 기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우암 주민이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기억이 밀바탕이 되어야 한다. 문화재가 재생사업 등으로 원래 가치를 상실시켜 왔다. 재생시 과거 마을 이미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초조사, 복원기술, 예산확보 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우암의 역사적 사실과 이를 지켜온 주민의 인력한 마을 거주환경, 즉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특별법, 특별구역지정 등 종합적인 제도적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암은 근대 격동기의 물결이 시작된 현장이며, 기억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암의 소박 마을은 한국의 격동기 부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미동 일본인 공동묘지에 거처를 정해 살게 된 비석마을, 태극도 신앙이 만든 감천이주마을이 남아있다. 부산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앓을 법한 마을들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온 마을들을 함께 부산의 미래로 살려내는 것이 도시와 시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부산이 지혜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부산의 힘’을 기대한다.

못이 얼마나 크면 대연이라 했나

(大淵)

팍태육의 바람고개 이야기

못골의 비밀

향토사 ‘내 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에서 ‘동명(洞名)의 유래’ 대연동편을 보면 “대연동은 옛날에는 못골(池谷)이라 했다. 예부터 이곳에 큰 연못(池, 淵)이 있어 이곳이 불렀다. 그리고 큰 연못이 있는 못골을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대연(大淵)이라는 지명이 되었다. 동래부지에 이 못 크기가 길이 18척, 너비 125척이라 했다”라고 하고, “이 못의 수원을 이용하여 대연동 일대 약 5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들에 경작을 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는 수리조합이 조직되어 옛날부터 있던 못 바로 위에 독을 쌓아 다시 새로운 못(동천고등학교 바로 아래)을 만들었다. …(중략) 이 못은 일제강점기까지 남아 있었고, 그 축소 방식이나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전의 못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라고 적혀있다. 당시의 못 규모는 길이 5.79m, 너비 40.26m 정도다. 말하기 쉽게 길이 6m, 너비 40m 정도 되는 크기다. 그 옛날 인적이 드물었던 시대의 공간개념으로는 무척 큰 규모였는지도 모른다. 다만 못 깊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유구(遺構)도 남아 있지 않으니 부족국가였던 거칠고, 해방 이후 대연동(洞)으로 명명되었다고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남아 있었던 못은 196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완전 매립돼 사통오달의 교통주맥지로 변모했다. 그래서 토박이 원로분과 함께 1950년대 사진을 바탕으로 당시의 못 자취를 더듬어 봤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데 8분 48초가 걸렸고 1분에 188보를 걸었다. 보폭을 75cm로 보면 약 140m 정도 이동한 셈이니 직사각형 형태의 못 둘레는 총



1952년 못골에서 빨래하는 주민. 연못의 규모가 짐작된다.

연장 1.13km 정도 된다. 이를 가로와 세로로 나뉘보니 대략 64m, 56m 나왔다. 사진에서 보는 못 크기와 비교해 보면 비스듬하게 나뉘어 있다. 평면에 수직을 설치해서 수동으로 개폐했다고 한다. 못 위로는 밤나무 밭이 있었고, 여름이면 수영장이 되었다가 겨울에는 썰매와 팽이치기를 하던 놀이터였다 고도 한다. 이 외에도 마을에는 못이 없지 않는데 군데 있었다고 하고, 인근에도 여러 개의 작은 못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이 못들을 모두 아울러 ‘대연’이라는 마을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어느 쪽이든 마을 이름의 발상지였다면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팍태육(소설가·향토사업가)

■ 명예기자 칼럼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무척 허전하던 4년 전 한글교실에서 처음 어르신들과 만나 때론 팔처럼, 때론 머니처럼 못 다한 효도를 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좋은 세상 만나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입을 모으신다. 처음 한글교실에 오셨을 땐 병색이 깊어 표정까지 어두워 보이시던 분이 이제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을 지

켜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사연도 다양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 여든이 넘도록 연필이라곤 쥐어 본 적이 없는 분이다. 기억, 니은은커녕 본인 이름자도 쓸 줄 몰랐다. 주변 추천으로 한글교실에 합류는 하셨지만 정작 ‘나와는 상관없는 시간’이라는 듯 늘 고개를 외면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이름 석 자 쓰는 것을 목표로 삼

자’고 설득하고 그때부터 이름을 써 놓고 그 위에 빼껴 쓰게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굳어진 손가락은 연필을 쥐기도 힘들었고 함께 손을 잡고 쓰기도 잘 되지 않았다. 특히 이름자에 ‘ㅇ’이 세 개나 들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자음, 모음이 뭔지는 몰라도 마침내 보지 않고도 ‘송유암’ 이름 석 자를 ‘그렸다.’ 너무 감격스러

워 눈물이 다 나왔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는지 달력으로 만든 연습장이 너털너털할 정도였다. 보건소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썼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안되는 일은 없다. 많은 분들이 영어로, 한자로 이름도 쓰고 이제는 간단한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다. 웅크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진정한 내 삶을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한정미(남구청 한글강사)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강연

‘알쓸신강(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강연)’ 이번 호에는 지난 8월 14일 옹호3동 마을건강강센터에서 열린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정은혜 간호사의 ‘내 생각대로 사(死)는 법’ 강연을 소개합니다.

“귀하의 삶과 죽음은 귀하가 선택하시길”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정은혜 간호사 웰다잉 강연

삶이라는 여행을 끝내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본디 있던 고향으로 가게 된다. 오늘 강연에서는 고향으로 가기 전 우리 삶이 마지막으로 받게 될 선물 ‘호스피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저마다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있었지만 간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에게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작별하기 전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만나 변화된 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IMF 외환위기 시절 가세가 기울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대상자였던 ‘감영철(가명)’ 할아버지’는 2015년 봄에 간암의 종류 중 하나인 담관암에 걸려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후 아내와 함께 집안에만 갇혀 우울하게 살던 할아버지는 건지 못하게 됐고 아내는 죽음이 임박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벽만 쳐다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돌보던 아내는 2016년 5월, 보건소에 도움을 청했다. 보건소는 곧장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로 할아버지의 사연을 전했고, 센터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불편한 몸을 해결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던 탓에 변비에 걸린 할아버지는 변비약을 물 없이 복용해 배가 팽창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확한 약 복용법을 알려주고 변비를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저절로 입맛까지 회복 시켰다.

두 번째는 불편한 생활을 해결했다. 오래 누워있으면 생기기 쉬운 욕창 방지를 위해 의료용 침대 대여 서비스를 알려줬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가 아닌 자녀부터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고 훈련을 했다.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아픈 곳을 말하지 않아 1년간 올바른 약 처방

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에게 편지로 증상을 알리는 대책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아내, 두 사람의 아픈 마음 치유를 도왔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였다. 하지만 방문 간호사에게는 각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마음을 털어놔다. 속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픈 마음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에 간호사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오랜 시간 들어줬다. 특히,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살아온 삶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표현을 일절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간호사를 통해 ‘아내 덕분에 살 수 있었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 황달이 심해진 할아버지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됐고 간호사는 아내에게 할아버지와 좋은 추억 떠올리기,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 생각해보기 등을 통해 작별 준비를 도왔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을 주무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다.

호스피스완화케어 센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내에게 다진 경제적, 심리적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사별 가족 정기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했다. 할아버지와 작별한지 1년 즈음이 지나고 난 뒤, 센터와의 이별도 다가왔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사는 게 다 이별이지 뭐. 보고야 싶지, 그런데 지낼 만은 해.”

공기가 나빠 봐야 좋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죽음 앞에서야 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내 생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소중한 삶을 살길 바란다.

정리=김윤경 주무관(소통감사담당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타라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9. 9.)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9.8.(일)	사천 각산	010-8565-8359
	연표산악회	9.8.(일)	지리산 한신계곡	010-5464-7845
	약천산악회	9.18.(수)	포항 오야사 들레길	010-4655-4370
	백호산악회	9.20.(금)	구례 오산 사성암	010-5621-4007
	남구자유산악회	9.1.(일)	안동 아가산	010-5576-8142
용호동	하나로산악회	9.4.(수)	유달산 1004대교	010-3837-6206
	청산산악회	9.1.(일)	함양 하림계곡 트레킹	010-8008-2087
	산이출아산악회	9.22.(일)	전북 장수군 장안산	010-9329-3560
	용호산악회	9.22.(일)	경주 무장봉	010-9497-4575
	여명산악회	9.1.(일)	경북영덕 옥계계곡	010-2582-4254
용당동	청심산악회	9.22.(일)	강진 가우도	010-2736-7553
	용마산악회	9.8.(일)	자율산행	010-2682-1170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9.8.(일)	포항 보병사	010-2902-8322
	산누리산악회	9.1.(일)	여수 하태도	010-4035-3432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9. 8. 28.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경성정비	용당동	수입자동차 정비원	1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2,100,000원 ~ 2,500,000원	051-622-1700
주식회사 큐하스	우암동	식품가공기계 조작원(남)	2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1,740,000원	051-930-0211
주식회사 에이서비스코리아 (아바니센터럴 부산)	문현동	한식조리사	1명	19. 8. 28. ~ 채용시	연봉 23,000,000원	051-791-5911
(주)TSS systems (아바니센터럴 부산)	문현동	룸메이드	5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 2,400,000원	010-2603-3088
메트로 방문요양센터	대연동	사회복지사	1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1,900,000원	051-645-5511
(주)영이엔지	문현동	건축시공 기술자	1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2,346,350원	051-631-9804
(주)굿타임관광	용당동	관광서비스 운전원	1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1,652,000원	051-512-4412
(주)케이리퍼콘	용당동	산악용 냉난방 설비 조작원	1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70-7760-7617
희성식품	대연동	정육원	1명	19. 8. 28. ~ 채용시	월급 1,820,000원 ~ 3,000,000원	051-625-7404
(주)비에스시	감만동	냉동에어컨 기사	1명	19. 8. 28. ~ 채용시	연봉 3,000,000원	054-285-9513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